

- 2008년도 -

의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싱가포르]



안 성 시 의 회

목 차

I. 해외연수 개요 2

- | | |
|----------------|----------------|
| 1. 목 적 | 2. 연수과제 |
| 3. 연수기간 및 대상국가 | 4. 연수단 편성 및 명단 |
| 5. 주요 연수일정 | |

II. 방문국가 개요 및 연수내용 4

□ 싱가포르

- | | |
|------------------------|---|
| 1. 개 요 | |
| ○ 역 사 |  4 |
| ○ 지리, 행정구역 |  5 |
| ○ 기후, 정치 |  6 |
| ○ 언 어 |  7 |
| ○ 주민과 이민정책, 종교와 휴일, 교육 |  8 |
| ○ 경 제 |  9 |
| ○ 문 화 |  10 |
| ○ 우리나라와의 관계 |  11 |
| 2. 주요 방문 지역 |  12 |
| 3. 방문시 견문사항 |  27 |

□ 조호바루(말레이시아)

- | | |
|-------------|---|
| 1. 개 요 |  37 |
| 2. 주요 방문 지역 |  37 |
| 3. 방문시 견문사항 |  38 |

□ 바탐(인도네시아)

- | | |
|-------------|---|
| 1. 개 요 |  40 |
| 2. 주요 방문지역 |  40 |
| 3. 방문시 견문사항 |  41 |

III. 해외연수를 마치며 시사하는 점 41

I. 해외연수 개요

1. 목 적

- 선진 해외연수를 통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걸 맞는 국제적인 감각과 역량을 배양하고,
- 연수에서 얻은 우수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발전방향 모색.

2. 연수과제

- 주택개발 정책 및 전시기설 운영실태 견학
- 도시개발 투자 및 전시기설 운영실태 견학
- 첨단 생명공학 관련 바이오폴리스 운영실태 견학
- 기타 선진시민의식 및 사회질서 등 탐구

3. 연수기간 및 대상국가

- 연수기간 : 15명(의원 9, 의회사무국 4, 집행기관 2)
- 연수국 : 싱가포르(※ 인접국가 도시인 조호바루, 바탐 포함)

4. 연수단 편성 및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안성시의회	의 장	양두석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송상원
“	부 의 장	오재근	“	지방행정7급	김승용
“	운영위원장	이종숙	“	지방행정8급	김지수
“	자치행정위원장	송형근	“	지방기능9급	황소영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완	건 축 과	지방시설 6급	이병석
“	의 원	이동재	환 경 과	지방환경 7급	정재풍
“	의 원	이세찬			
“	의 원	정기훈			
“	의 원	홍영환			

5. 주요 연수일정

월 일	지 역	교통편	시 간	연 수 일 정	비 고
제1일 2. 25 (월)	인 천 싱가포르 조호바루	전용버스 OZ 751 전용버스	14:00 16:05 21:30	· 인천 국제공항 도착 후 출국 수속 · 인천 국제공항 출발 ·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 도착 · 호텔투숙	
제2일 2. 26 (화)	조호바루 싱가포르 바 탐	전용버스 FERRY	전 일	· 호텔 조식 후 원주민마을, 이슬람사원 방문 · 싱가포르 주택공사 전시관 방문 · 머라이온 공원 방문 · 인도네시아 바탐으로 이동 · 호텔투숙	
제3일 2. 27 (수)	바 탐 싱가포르	FERRY	전 일	· 호텔 조식 후 원주민마을 방문 · 싱가포르로 이동 힌두교사원 방문 ·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 전시관 방문 (싱가포르 도시개발 방문투자 및 전시시설 견학) · 호텔투숙	
제4일 2. 28 (목)	싱 가 폴	전용버스 OZ 752	전 일 22:35	· 호텔 조식 후 센토사섬, 주룽새공원 방문 · 싱가포르 바이오폴리스 방문 (첨단 생명공학으로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규모사업 견학) · 석식 후 공항이동 · 싱가포르 창이공항 출발	
제5일 2. 29 (금)	인 천 안 성	전용버스	06:05 08:30	· 인천국제공항 도착 · 안성 도착	

Ⅱ. 방문국가 개요 및 연수내용

【 싱가포르 - The Republic of Singapore 】

1. 개 요

□ 역 사

- 싱가포르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3세기 중국의 문헌에 나온다. 14세기경에는 스리비자야 왕국에 속하며 자바어로 “바다마을”이라는 뜻의 “테마섹”(Temasek)이라 불리었다. 테마섹은 중요한 무역도시로 떠올랐으나, 이후 14세기 경에는 쇠락의 길을 걷는다.
- 16세기와 19세기 사이에 싱가포르는 조호르 술탄국의 일부였다. 1617년 말레이시아-포르투갈 전쟁 중에 싱가포르를 포르투갈 군대가 불태웠다. 이후 16세기 동안에는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으며, 17세기에는 덴마크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 하지만 이때는 그저 어민과 가끔씩 해적들이 나타나는 지역이었을 뿐이었다.
- 1819년 영국 동인도회사의 토머스 스탬퍼드 래플스경이 이 지역에 상륙하여 조호르의 술탄과 계약을 맺고 싱가포르를 국제 무역항으로 개발하였으며, 이때부터 크게 성장하였다. 영국의 인도정부가 1858년부터 이 지역을 관할하였으며, 1867년부터 정식으로 대영제국의 식민지로 편입되었다. 1869년까지 싱가포르의 인구는 10만명에 달하였다.
-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제국 군대가 말레이시아를 침공하여 싱가포르를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6일간 영국군은 치열한 방어를 하였으나, 1942년 2월 15일 항복을 한다. 일본은 싱가포르를 쇼난으로 개명하고 1945년 9월 12일 일본이 항복한 후 영국이 탈환할 때까지 지배했다.

- 1959년에 리완유(Lee Kuan Yew)수상과 유습 빈 이삭(Yusof bin Ishak)에 의해 자치주가 되었으며, 1962년에는 말레이시아에 합병되었다. 그러나 2년 후 말레이시아와의 이념적인 차이로 독립하게 되고, 1965년 8월 9일 독립국가로서 새로운 국가를 시작하였다. 유습 빈 이삭이 초대 대통령으로 이완유가 초대수상으로 계속 집권하였다.
- 새로운 국가로서 싱가포르의 당면한 실업과 자급자족의 문제가 심각했다. 그러나 1959년부터 1990년까지 이완유 수상의 장기집권 기간 동안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어 홍콩에 버금가는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관 주도의 경제 사회정책의 집행은 공산주의보다 더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0년에 고촉통(Goh Chok Tong)이 수상직을 승계하였으며, 2004년에는 리완유 전수상(현재 국가자문)의 큰아들인 리셴룽(Lee Hsien Loong)이 3대 수상으로 집권하고 있다.

□ 지 리

- 싱가포르는 63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적은 약 699km² (서울시는 605km²)이다. 말레이시아의 조호바루와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북쪽은 조호-싱가포르 코즈웨이를 통해, 서쪽은 투아스 제2연결점에 연결되어 있다. 주룽, 폴라 테콩, 폴라 우빈, 센토사가 주요섬이며, 가장 높은 산은 부킷 티마 힐로 해발 166m이다. 본섬의 중심에 위치한 싱가포르강의 남쪽이 원래 도시의 빌딩이었으며 현재는 다운타운코어로 불린다. 이전에 그 외 지역은 농장과 열대우림이었으나, 현재는 새로운 도시의 확장과 함께 거주와 쇼핑 그리고 산업단지로 바뀌었다.

□ 행정구역

-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의 형태를 띄고 있다. 마치 다이아몬드 심볼 형태를 가진 싱가포르는 서부, 북부, 북동부, 동부, 중부의 5개 지역으로 크게 나누어지며 퀸즈타운, 센트럴에리어 등 66개 도시계획 구역으로 이루어진다.

□ 기 후

- 싱가포르는 전형적인 열대우림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계절의 구분이 없다. 기온은 보통 섭씨 22도에서 34도 사이이며, 습도는 60~90% 사이이다. 역사상 가장 추웠을 때는 섭씨 18.4도였으며, 가장 더웠을 때는 섭씨 37.8도였다. 하루 중 비가 올 때도 잦으며, 이때는 습도가 100%에 달하기도 한다.

□ 정 치

- 싱가포르는 성문법을 가진 영국식 의회정부의 공화국이다. 행정권이 내각에 있는 내각책임제로서 총리가 주도하게 된다. 싱가포르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로서 일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1991년 개정된 의회의원 선거법에서 복수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적 투표로 의회가 구성되게 되었다.
- 1959년부터 현재까지 싱가포르는 리완유가 이끄는 인민행동당(PAP, People's Action Party)이 집권하고 있다. 야당으로는 싱가포르 노동자당, 싱가포르 민주당, 싱가포르 민주연합 등이 있으나 존재가 미미하다. 여당의 장기집권과 강력한 정권의 힘이 싱가포르를 보통의 민주국가보다는 오히려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국가보다 더 강력한 독재국가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는 검열, 선거구 조작과 민주화 운동 탄압 등의 정치적 행동을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사법권 또한 인민행동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청렴도가 높은 편이며 투명한 시장경제를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1960년 대부터 시작한 주택개발위원회에 의한 “플랫”(Flat)이라고 불리우던 대규모 정부공급아파트 정책이나 경쟁력이 우수한 교육시스템이 유명하다. 미디어, 사회간접시설, 교통 등 대부분의 지역경제는 정부소유의 회사가 주도하고 있다.

- 싱가포르의 법은 대영제국과 영인도의 법 그리고 영미법에 기반하고 있으나 인민행동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 특히 발언의 자유같은 법은 다 민족, 다종교사회인 싱가포르의 국가적 기의를 위해서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만약 집회나 반국가적 발언을 한다면 쉽게 2~3개월 정도는 감옥에 수감된다고 한다.
- 특히 수많은 무거운 벌금체계와 마약거래에 대한 중형이 유명하다. 국제사면위원회 엠네스티는 싱가포르를 세계에서 가장 사형이 높은 나라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1994년 공공기물파손죄를 지은 미국인 소년에 대한 태형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뉴스위크지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할 정도로 논란이 뜨거웠다.

□ 언 어

- 말레이어, 영어 중국어, 타밀어가 공용어이다. 하지만 이것은 명목적인 것으로 영어가 유일한 공용어 역할을 한다. 타밀어를 공용어로 한 이유는 단순히 타밀인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도 있다. 일상적인 경우에도 영어를 많이 쓰는 편이며, 특히 직장에서는 용어 혹은 중국어가 많이 쓰인다. 하지만 중국어의 경우는 광둥어나 다른 지역 중국어 사투리를 구사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국계 싱가포르인 사이에서도 영어가 많이 쓰인다.
- 영어가 많이 쓰이긴 하지만 싱글리쉬라는 일종의 싱가포르인이 구사하는 사투리가 있기도 하다. 싱글리쉬는 영국식 영어를 기반으로 중국이나 말레이식 억양에 짧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특징이다.
- 홍콩과 비교해서도 영어가 더 폭넓게 쓰이고 있으며 일반 상점이나 택시기사의 영어구사 능력도 보통 홍콩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유창한 영어구사 가능 인구가 많은 덕분에 영국, 미국과 다른 서방국가에서는 홍콩과 함께 아시아에서 진출하기 쉬운 거점도시로서 싱가포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간판, 컴퓨터, 학교, 국가 등의 생활속에서도 영어가 많이 쓰인다.

□ 주민과 이민정책

- 싱가포르의 인구는 약 430만명으로 미국과 비슷하게 이민한 사람이 건설한 이민국가이다. 현재 인구의 70%가 중국계이며, 나머지는 말레이인, 태국인, 영국인, 타밀인 등의 기타 민족이 거주한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국가에서 이민을 장려하고 있으며, 한 해에 태어나는 싱가포르의 아기보다 이민으로 유입되는 새로운 시민의 숫자가 더 많다. 특히 싱가포르의 국가에 도움이 될 만한 인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체류비자나 취업비자, 영주권을 얻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 쉬우며 투자 및 사업이민의 경우 100%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다.

□ 종교와 휴일

- 싱가포르에는 국교는 없으며,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다양한 종교를 믿는 인종들이 같이 살고 있다. 국가 공휴일을 보면 하이라야하지, 부처탄신일, 디파발리(힌두음력설), 하리야푸아사(라마단), 크리스마스 등 다양한 종교의 휴일이 국가공휴일(Bank Holiday)로 지정되어 있다. 강력한 정부 권력에 의해 다른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정치적 종교관여나 종교분쟁은 찾아볼 수 없다.

□ 교 육

- 2000년부터 초등교육이 의무로 되었으며, 문맹률은 아시아에서 가장 우수한 편인 5%미만이다. 1997년 TIMSS 자료에서는 싱가포르가 수학과 과학에서 일본(수학 및 과학 3위), 한국(수학 2위, 과학 4위), 미국(수학28위, 과학 17위)를 제치고 모두 1위를 차지한 바가 있다.(1995, 1999, 2003년에 1위를 차지했다.

-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가 섞여 있으나 싱가포르 교육부에서 표준과정을 설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의 구분도 분명치 않은 것이 어떤 학교는 정부가 운영하고, 어떤 학교는 정부보조를 받고, 자율운영, 독립 혹은 개인재정에 의한 학교 재정 등 다양하다. 또한 수준 높은 다양한 국제학교가 외국인 파견근무자의 가족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 학교 생활에서의 스트레스는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와 같이 심한 편이다. 대단히 경쟁적으로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 초등학교를 마친 후에는 초등졸업시험이라는 시험을 치루고 중등과정 이후에는 진학진로에 따라 시험과정이 각각 다르게 설정된다. 대학과정으로는 국립 싱가포르대학교, 난양 기술대학교와 싱가포르 매니지먼트 대학교가 유명하다. 이 외에 기술대학으로 테마섹, 싱가포르, 니안, 난양, 리퍼블릭 폴리테크닉이 있다.

□ 경 제

- 싱가포르의 경제정책은 국가에서 통제하는 사회주의식 자본주의이다. 국민총생산(GDP)으로 볼때 현재 세계에서 22번째로 부유한 국가이며, 외환보유고는 1조 190억 달러(미국)에 이른다. 싱가포르는 고도로 발달된 시장기반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수출입 무역에 의존하여 발달하여 왔다. 제조업도 발전한 편인데, 2005년 기준으로 국민총생산의 28%가 제조업으로부터 나왔다. 주요 생산품은 전자, 석유화학, 기계공학과 의약품 제조이다.
- 싱가포르는 런던, 뉴욕, 도쿄에 이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외환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가들에게 가장 친화적인 정책과 환경으로 평가 받고 있다. 홍콩, 한국, 대만과 함께 싱가포르는 종종 아시아의 4마리의 호랑이로 불리곤 한다.
- 싱가포르는 관광산업으로도 유명한데, 2006년에는 9천 7백만 명의 관광객이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05년

에는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도박을 합법화시켰으며, 마리나 사우스와 센토사섬에 새로운 테마파크를 세우는 계획을 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음식 축제, 칭게이 축제 등의 관광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다.

- 2001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국민총생산이 2.2%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01년 12월에 경제검토위원회(ERC, The Economic Review Committee)를 세우고 경제에 다시 활력을 심어주기 위한 정책수정을 제시하였으며, 이로부터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2004년에는 8.3%, 2005년에는 6.4%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 문 화

- 싱가포르는 원래 살던 말레이 민족 인구나 3대에 걸친 중국인, 이민온 인도인과 아랍인 그리고 현대에 이민오거나 현지파견된 한국인을 포함한 여러 민족과 문화가 다양하게 섞여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영국 식민지 문화와 페리카난(Pernakan, 해협 중국인 사회)의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 근래에 들어 미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나, 싱가포르 사람들이 주로 쓰는 영어는 식민지 문화의 영향을 받은 영국식 영어이다. 여기에 다양한 중국어 방언, 말레이어, 인도어가 뒤섞여서 싱글리쉬라는 일종의 영어 방언을 만들고 쓰게 되었다. 교육제도에서 영어가 주된 언어로 쓰이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문학은 주로 영어로 쓰여 진다.
- 리틀인디아나 차이나타운같은 민족성이 나타나는 지역이 아직도 존재하며, 이것은 식민지시대에 이민자를 분리수용하는 정책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종교의 사원이 시내에 건축되었다. 1990년대 이래로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를 동과 서로 아우를 수 있는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진정한 코스모

폴리탄의 관문으로 만들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 중 하나는 2002년 10월 12일 문을 연 에스프란테 극장이다.

- 내부적으로는 기존 싱가포르인과 이민자 사이에 잘 보이지 않는 긴장과 반목이 존재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 또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으로 억제되고 있다. 실제로 미래에 17~19세기의 미국사회와 같은 새로운 이민문화가 생길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할 과제이다.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싱가포르와 대한민국 사이에는 1970년 12월 싱가포르에 통상 경제대표부를 개설한 이래로 이 대표부가 1971년 7월 총영사관으로 승격되었고, 1972년에 양국간 항공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75년 8월 정식으로 대사관계로 승격되었다. 1979년 11월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었다. 특히 건설업계의 교류가 활발한데 싱가포르의 창이공항을 비롯한 많은 주요건물을 한국 건설업체가 건설하였다.
- 양국은 서로 10위권 내의 교역 상대국이며, 주로 전자전기제품, 기계류가 수출입품목이며, 특히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 2000년에 정점을 이루다가 줄어들었으나 현재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다.
- 특히 싱가포르 투자청(GIC,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은 1999년 잠실 시그마타워, 2000년에는 프라임 타워, 서울파이낸스타워, 무교빌딩, 코오롱빌딩 등의 대형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며, 2005년에는 서울 역삼동의 스타타워빌딩을 매입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부동산 투자과정에서 탈루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2. 주요 방문 지역

□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Singapore Changi International Airport)

-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기에 국내선 항공은 없다. 그러나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은 동남아시아의 허브 공항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계 14개 유명 여행 전문지 및 잡지사로부터 12년째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되었고, 62개 항공사가 54개국 114개 도시에 취항하고 있음. 2006년 기준 연간 항공기 운항 횟수가 18만 4000여회, 승객수는 2517만여명, 화물 수송량은 135만 8000여 ton에 이른다.
- 승객들은 입국 심사장을 통과하면서 “빨라서 좋다.”며 또 한번 기분이 좋아진다. 아무리 많은 승객들이 기다린다 해도 평균 8분을 초과하지 않으며, 대부분 3-4분 안에 입국 수속이 종료된다. 빠른 입국 수속을 위해 여권 없이 지문을 이용한 출입국 수속도 병행하고 있다. 이곳을 거쳐 세관 지역에 도착하면 대부분의 경우 벌써 가방이 먼저 도착해 있어 승객들은 반가움과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창이 공항에서는 항공기 도착 후 대개 15분 이내에 수하물을 찾을 수 있도록 신속히 업무가 처리가 되고 있어, 25분이 넘으면 그야말로 비상이다. “항공기 도착 후 30분 이내 입국 수속 종료”, 이것이 창이 공항 의 서비스 목표 중의 하나이다. 이곳 공항 종사자들은 승객들을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을 상당한 수치로 생각한다.
- 출국수속도 마찬가지로이다. 카운터 입장 전 수하물 검색부터 해당 항공사 카운터에서 좌석 배정과 수하물을 위탁하기까지 평균 10~15분 정도이다. 수시로 공항 당국에서 수속 소요 시간을 점검해 승객이 불편함이 있을 경우 해당 항공사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 탑승 수속 후 바로 출국 사열을 받게 되며 이 또한 7-8분을 초과치 않는다. 질문도 거의 없고 여권상의 성명과 생년월일, 범법 사실 조회 정도로 종료된다.



[창이공항 - 행사홍보]



[창이공항 - 팜플렛 게시]

□ 코즈웨이(Causeway)

- 싱가포르 인접국가인 말레이시아 반도의 최남단에 있는 조호루주 주도를 가려면 두 도시를 이어주고 있는 코즈웨이(causeway)를 가로지르게 되는데 4년여의 공사끝에 1924년 완성된 코즈웨이는 길이 1,056m이고 물 밑으로 23m를 파고 들어가 기반을 다져 세워진 육교이다.
-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에 둘러싸여 있으며, 이 두 국가와는 왕래도 잦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조호바루는 코즈웨이로 연결돼 있어서 매일 국경을 넘어 출퇴근하는 사람도 꽤 많다. 이 코즈웨이는 자동차만 다니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도로 옆으로는 말레이시아 기차가 싱가포르까지 달리는 철길이 있고 그 옆에는 커다란 파이프(상수도관)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말레이시아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있다. 물론 정수가 안된 물이다.
- 싱가포르는 강수량이 많고 19개의 저수지도 있지만 땅이 좁아 430만명의 인구에게 필요한 물을 다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이 곳 코즈웨이에 흐르는 물을 놓고 물값 때문에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기도 하지만 운명적으로 뗄레야 뗄 수 없는 너무도 가까운 이웃으로 있다. 코즈웨이는 교통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적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이어주고 있는 총체적 중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 The Housing of Development Board)

1960년에 설립된 HDB는 적절한 가격과 품질의 주택 및 부대시설을 계획하고 개발하며, 현재 HDB가 개발한 공동 주택의 인구 수용률은 85%에 이릅니다.

가. 주택개발청의 설립목적 등

① 설립목적

- 주택개발청은 경기도에 비교하면 경기지방공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HDB는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왔고 독창적인 설계와 주택 정책도 꾸준히 수립해오고 있다. 따라서 HDB의 자부심은 참으로 대단하다. 단순히 집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는데 HDB의 설립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② 임직원의 직업정신

- HDB는 모든 가정과 커뮤니티를 구상할 때 백지상태에서 출발해 아이디어를 점차적으로 가득 채운다. 4천여명에 달하는 HDB 임직원들은 기획과 설계에서 항상 다양한 요구의 밸런스를 맞추는데 주력한다. 왜냐하면 이제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집이란 단순히 “사는 곳”을 의미하는 것에서 나아가 삶의 꿈을 실현하는 곳이라는 것을 HDB 임직원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 현재 싱가포르 국민들은 역동적인 디자인에서 나아가 개인만의 공간,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집을 원하고 HDB는 거기에 부응하는 집을 공급하고 있다.

나. 주택개발청의 임무와 주요 정책

① 장기계획 수립

- 35년간의 공공주택 건립경험으로 HDB는 입주민의 요구와 바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다. 이런 충분한 정보로 인해 HDB는 입주민에게 최적의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 창출을 가능하게 하였다. 공공주택정책에서의 강점은 단순히 주택 제공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보수를 포함한 유지관리까지 최고의 주거환경을 추구한다.

② 노후시설의 개보수

- 오래된 주거시설에 대한 재개발과 개보수를 통한 주거환경의 개선 사업을 들 수 있다. 공공주택의 입주민들은 자녀들의 성장이나 소득향상에 따라 보다 큰 평형, 보다 고급스런 내부장식, 좀 더 좋은 주변환경으로 옮겨가고 싶어한다. 이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원룸(1Room)이나 2룸(2Room)의 오래된 임대형 아파트를 4실 또는 5실 등의 고급 평형으로 개보수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 또한 오래된 주거환경을 최신식 환경으로 바꾸기 위해 혁신프로그램(Up grading)으로 마감재, 편의시설 등을 신축아파트의 수준으로 개보수 하고, 여기에는 준공후 18년이 경과한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프로그램과 18년 미만의 아파트에 적용되는 부분 혁신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 민자 참여 제도(Private Sector Participation)

- 1991년 HDB는 공공주택정책에 대담하고 혁신적인 시도를 했다. 이는 주택설계에 있어 수요자의 다양한 기호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설계시공 일괄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민간회사들을 공공주택의 설계와 시공에 참여시켜 다양하고 고급화된 건축평면을 확보하고, 또한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HDB 소유의 부지를 민간개발업자에게 매도하여 도시전체의 경관을 다양하게 하였다.

④ 저소득층 지원 정책

- 내집마련정책에 대한 저소득층 임대세입자의 주택소유를 돕기 위해, 주택개발청은 판매가의 30%까지를 할인하여 판매한다.
- 월수입이 1,200불(한화 120만원)이하의 저소득세대에게 3Room형을 공급하기 위해 HDB가 일반시장에서 구입후 보조금과 함께 공급하고 있다.



[주택개발청 견학 1]



[주택개발청 견학 2]



[주택개발청 - 전시물]



[주택개발청 견학 3]

싱가폴의 주택정책

□ 주택정책 개요

-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은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함으로써 주택 복지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공동주택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공공주택정책의 통제 및 감독을 수행하는 최고 행정기관은 국토개발청이며, 산하에 주택개발청(HDB)이 공동주택의 건설·분양·임대·금융·관리·재개발 등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 1968년 이후 공공주택정책의 성공요인

○ 재원조달의 성공

- 중앙연금준비기금(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과 비슷)에 강제로 납부하는 적립금을 HDB 아파트 구입목적의 경우 인출을 허용함으로써 재원 조달을 쉽게 하였다.

○ 낮은 공공주택가격

- 공공주택은 민간주택보다 약 45%낮은 가격으로 분양되어 중·저소득층이 부담할 수 있는 주택구입에 도움이 되었다.

○ 고소득층은 공동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 S\$8,000(약5,500,000원) 이상인 고소득층 또는 연금기금의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자유사업자들을 공공주택의 공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들은 가격이 높은 민간 주택시장으로 흡수되도록 하였다.

○ 장기저리의 융자정책

- 공공주택인 HDB아파트 구입시 주택가격의 80% 범위안에서 장기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으며, 대출금은 균등상환방식에 위한 월부금 불입형태로 상환하여 중·저소득층의 주택구입을 돕고 있다.

○ 투기 방지

- HDB주택은 30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의무거주기간 전에 판매하려면 분양가격으로 HDB에 환매하도록 하여 의무거주기간이 경과되어야 주택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이후 분양받는 주택을 5년 이상 거주한 뒤에 매매할 경우에는 HDB가 지정하는 가격으로 HDB에 환매하도록 하여 지나친 프리미엄에 의한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 장기임대 형식의 분양

- HDB 공공주택은 피분양자에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99년간 장기임대 형식으로 계약함으로써 소유는 하되 소유자가 파산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의 상실을 방지하고 있다.

○ 중형 공공주택 공급

- 공공주택의 공급이 중·저소득층을 다양하게 포용함으로써 공공주택이 일부 소형 아파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형아파트도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어 공공주택의 질도 제고되고 있다.

□ 머라이온 파크(Merlion Park)

- 1972년 9월 15일, 당시수상이던 리완유의 제한으로 세워진 머라이온, 상반신은 사자, 하반신은 물고기 모습을 한 동상이다. 사자는 싱가포르 이름의 유래인 싱가포르(산스크리트어로 사자를 뜻함)에서 유래하며, 물고기는 항구도시 싱가포르를 상징한다.
- 2002년 머라이온은 원 플러톤 해변쪽에 새롭게 조성된 공원으로 이전되어 분수기능도 더해졌는데, 바다를 향해 힘껏 물을 내뿜는 모습이 볼만하다. 8m높이의 머라이온 뒤로는 미니 머라이온이 서 있으며, 부두도 설치돼 있다. 저녁에 조명을 받은 머라이온의 모습도 장관이다.



[머라이온파크의 머라이언상]



[머라이온파크옆의 에스플러네이드]

□ 스리 마리암만 사원(Sri Mariamman Temple)

- 사우스 브리지 로드에서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힌두교 사원 (1827년 완성)으로 19세기 중반까지 이 일대에는 인도인이 많이 살았다고 한다. 본족인 여신 마리암만은 남인도의 수호신이다. 원색으로 칠한 힌두교의 신들, 동물, 사람 등의 동상이 새겨진 15m의 고푸라(높은 문)가 차이나타운 속에서 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면 밖의 소음과는 전혀 다른 별천지가 펼쳐진다. 향이 피워오르고 신자들이 기도를 드리는 모습은 엄숙하면서 장엄한 분위기가 감돈다.

□ 도시재개발청(URA,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 개발부(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산하의 한 기관으로서 국가의 개발을 위한 계획과 보전을 관할하고 있으며, 3가지의 범주로 일을 나누어 진행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도시계획은 71년부터 시작된 10년 단위의 Concept Plan과 매 5년마다 이루어지는 Master Plan이 기본이며, 토지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40~50년 후의 경제상황과 인구, 수송 문제등을 고려해 10단위의 토지이용원칙을 세우고, 5년마다 실제운용을 점검한다.

가. 3가지 범주의 업무내용

1) 계획(Planing)

- 제한된 국토를 미래를 위해, 또는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적합한 개발 청사진을 제시해 나가는 계획을 착수하기 위해 3가지 실행방법을 계획했다.

① 개념계획(Concept Plan) : 도시장기발전구상

- 장기 토지사용계획 및 교통개발을 위한 확실한 청사진 그 계획 아래 3가지 분류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준비
- 주택, 레저, 환경, 교통, 공공시설 및 사업장소 등과 사회 경제적으로 필요시되는 토지(지역)을 신문에 게재함으로써, 생활수준 및 질을 향상 시켜나가는 것

예) 도시중심지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4개지역(Tampines, Seletar, Woodlands, Jurong East)에 사무실과 상업시설을 마련, 가정과 보다 근접한 지역에 사업장, 문화시설, 여가 및 오락시설을 형성

② 개발지침계획(DGP, Development Guids Plan)

- DGP는 토지사용 및 개발의 강도, 건물의 높이, 교통, 환경, 개발, 보도, 옥외시설, 토지개발 및 보존 등에 대한 다양한 계획정책과 지침을 설정하여 싱가포르는 현재 55가지의 DGP로 분류, 각 DGP는 Concept Plan의 원리를 응용 3년내에 모든 DGP가 완료될때 1958년 이후 시작된 싱가포르 개발 Master Plan(도시관리계획)과 다른 새로운 Master Plan이 형성됨.

③ 유산보존(Conserving Heritage)

- 신·구 개발이 이루어지는 동안의 복합적인 문화유산 보존, 하나의 국가 보존기관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 지역, 역사 유적지 등을 지정하여 현재까지 5,315개의 건물들이 보존대상으로 등록되었다.

2) 촉진(Facilitating)

- 토지매매를 통한 개발촉진, 하부구조(infra structure)와 시설개발을 위한 특별 서비스 제공

① 부지매매(Sales of Site)

- 포괄적 개발을 위해 Private Sector에게 토지를 매매하고 있으며, 1967년 이후 548 구획이상 매매함. 이러한 토지매매 프로그램은 정부와 Private sector와의 Partner ship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중의 하나로 정부는 토지를 제공, Private sector는 재정적인 자원을 제공한다. Concept Plan을 실현하기 위해 URA에서 매매된 부지에 대해 개발될수 있는 요소를 한정지어 줌.

② 기획제공(Project Service)

- 대중의 환경향상 기획에 협조
- Beat Quay 지역에 보행로를 건설하여 유명한 옥외식당가로 변천
- Clark Quay를 강변축제마을(Waterfront Festival Village)로 변천
- 도심지역 Master Plan도 주도함.

3) 통제, 조정(Regulating)

- Concept Plan 및 DGP에 대한 개념이 개발로 확실한 실천이 가능하게 하는 조정자 역할기능 수행

나. 도시재개발청 전시관(City Galley)

- URA에서는 입주건물내에 대규모의 도시전시관(시티갤러리)를 설치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시국가로서 싱가포르의 특수성과 미래비전을 홍보하고 있다.

누구나 싱가포르 도심 스카이라인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모형을 전시하고 있고 건립이 확정된 빌딩들은 황토색으로 칠해져 이미 있는 건물들과 스카이라인의 조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 시티갤러리는 한눈에 싱가포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면서 도시국가로서의 싱가포르의 정체성과 지향하는 목표가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다.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모여 면서 인간다운 삶과 경제적 번영을 위하여 어떤 고민을 해야 하고 무엇을 실행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도시재개발청 전시관 - 전시물 1]



[도시재개발청 전시관 견학 1]



[도시재개발청 전시관 - 마스터플랜 2003]



[도시재개발청 전시관 - 전시물 2]



[도시재개발청 전시관 - 전시물 3]



[도시재개발청 앞에서]

□ 센토사 섬(Sentosa Island)

- 1972년 싱가포르 정부에서 관광정책으로 개발한 섬이다. “센토사”라는 이름은 말레이어로 “평화와 고요함”을 뜻한다. 풍부한 자연의 혜택을 받은 이 섬은 싱가포르 본토에서 약 800m 떨어져 있다. 동서 약 4km, 남북 약 1.5km의 섬 곳곳에는 각종 레저시설과 호텔 등이 들어서있다. 2002년부터 대규모 재개발사업이 진행중인데, 2010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일부는 개장이 완료되었거나 새로운 레저시설들이 오픈하고 있다.

□ 주룽새 공원(Jurong Bird Park)

- 광대한 20헥타의 공원안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800여종이 넘는 8,000여 마리의 새들이 자연에 가깝게 방사되고 있는 곳으로 새공원으로 세계 제2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2ha의 열대우림을 둘러싼 대형 사육장인 워터폴 에이비어리(Waterfall Aviary)에는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온 80여종 1,500여 새들이 자유롭게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어둠의 세계(World of Darkness)에서는 야행성 조류인 올빼미, 키위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독수리와 매 등 평소에 보기 드문 새들의 올스타 버드쇼(All star bird show)에서는 새들의 위엄있고 아름다운 모습에 매료된다.



[주룽새 공원 로고]



[새장안의 홍학]

□ 바이오폴리스(Biopolis) 센터

- 바이오폴리스는 2001년에 싱가포르 정부가 계획을 세워 2003년에 1차로 개관했고, 2006년 10월에 완공했다. 단지는 총 22만 2,000m²(6만8,500평)이며, 8-12층짜리 건물 7개가 들어서 있다. 건물공사비로만 3,000억원을 쏟아부었고, 이곳에는 해외 연구진을 포함해 2,000여명의 생명공학 연구원이 세포와 씨름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바이오폴리스와 새로 짓고 있는 전자공학 연구단지 퓨전폴리스(Fusionpolis)에 향후 10년간 총 2조원을 투자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 연구소의 역할에 대해 집약을 하면 싱가포르의 생명공학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꽃대(signpost)라 할 수 있고, 실험실에서 성공한 시제품을 의료산업이나 생명공학의 산업화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가령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환자치료도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병원의 수준을 서구의 고급병원 수준으로 올려 아시아 부자들이 치료받으러 오도록 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바이오폴리스에 생명공학뿐만 아니라 의료산업의 중요한 싱크탱크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 바이오폴리스 연구 주제는 줄기세포, 암 연구의 첨단 기초과학에서 눈에 넣는 소프트렌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단지 연구자의 관심이 다양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바이오폴리스의 연구주제를 묶는 주제어는 『실용』이다. 줄기세포에서 암연구에 이르기까지 기초과학을 내세우지만 돈이 되지 않으면 연구비를 주지 않는다.
- 바이오폴리스는 연구원과 3년 기한으로 계약을 맺는다. 기한이 되어 평가를 할 때, 논문보다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을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주안점을 둔다. 실험실이 회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동 7개 중 하나는 벤처기업을 위해 준비했다. 이곳에 입주한 한 회사에서는 줄기세포를 살 수도 있다.

- 바이오폴리스가 출범할 당시에 싱가포르 전역에 흩어져 있던 바이오 관련 연구소를 모았으며, 연구인력이 적다고 판단한 정부는 해외 연구인력 유치에 집중했다. 그 결과로 다국적 기업 노바티스(Novartis)는 아예 한 동 전체에 입주했다. 노바티스뿐만 아니라 머크(Merck), 일본의 세이코(Seiko) 같은 다국적업체도 입주해 있다.
- 기존의 연구조직을 묶어 놓아 생기는 장점은 흩어져 있을 때 생기는 단점을 이해하면 이해가 빠르다. 연구조직이 흩어져 있다고 가정해 볼때, 만약 유전자 발현 정도를 알고 싶으면, 각 연구그룹들은 샘플을 들고 이동해야 하고 그러면, 샘플의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바이오만 모아 놓지 않고 화학, 전자공학, 전산까지 입주한 이유는 유전자 연구는 사실 연구결과가 어디로 될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개척지이면서 다양한 분야에 망라돼 있다. 생물은 물론 화학, 전자공학, 전산의 도움도 받아야 하며 연구그룹 리더들이 수시로 만나서 토론해야 하는데 한 군데 모여져 있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지리적으로 7개의 건물에 통합을 했지만 다른 분야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실제 통합효과는 낮아진다. 예를 들면 해외연구진을 어렵게 유치해 놓고 이들의 주거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파트 구입 자체가 어렵다면 바이오폴리스 출범의미는 퇴색된다.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연구단지를 구성할 때부터 연구소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주거용 아파트 단지를 따로 마련했다. 싱가포르의 주거비용은 한국에 비해서 낮는데 이중 일부 혹은 전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 싱가포르 정부의 세심함은 건물 설계에도 드러난다. 통합 효과를 높이기 위해 7개의 건물 5층을 서로 연결해 1층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했다. 1층과 달리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동할 수 있는 권한 부여도 물론 설정해 놨다.
- 싱가포르 국립대학도 바이오폴리스에 발맞춰 나노과학 및 공학 센터를 설립했다. 대학에 소속된 물리·전자·화학·생물 분야에서 100명의 교수진을 모았다. 센터도 각 학과에서 빨리 올 수 있도록 중심지가 되는 곳에 세웠으며, 고급 실험장비를 모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 인구 440만의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연구인력이 부족하다. 대학다운 대학도 난양기술대와 싱가포르 국립대학 둘뿐이다. 바이오폴리스에 돈을 넣어서 건물을 짓고 고가의 장비를 사와 해외 우수 연구자의 환심을 샀다. 연구소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실험 기자재는 다 산다”는 원칙을 정했다. 한국의 유력한 연구소에도 하나정도 있는 질량분석기(mass spectroscopy), 유전자염기서열해독기(sequencer)가 각 건물의 층마다 있어서 사용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는 일은 없다. 이 장비들은 대당 2억원이 넘는다.
- 개인의 연봉은 누설할 수 없도록 계약에 명시돼 있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유명한 학자를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연봉 역시 당연하다. 이렇게 유치한 해외 연구진에는 복제양 “돌리”연구에 참여했던 영국 로슬린(Roslin)연구소의 콜먼(Colman)박사도 있다. 어찌보면 해외 용병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비싼 연봉을 받는 해외 연구진이 떠나면 싱가포르 정부는 뜻대로 되지 않고 막대한 연구비만 남의 식구를 위해 쓰는 꼴이 되는 건 아닌지에 의문은 생길 수가 있다. 하지만 연구소는 물론 싱가포르 사회를 매뉴얼에 기반한 사회(manual based system)이다. 사람이 교체되어도 시스템이 움직이도록 사회가 돌아가고 있으며, 외국 연구진이 빠져나가도 그들의 지식은 싱가포르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바이오폴리스 건물배치도]



[바이오폴리스 건물]



[바이오폴리스 Genome 안내석 앞에서]



[바이오폴리스 건물안내도 앞에서]

□ 클러크 키(Clarke Quay)

- 싱가포르 강과 리버 밸리 로드(River Valley Rd)사이에 위치한 이곳은 2004년부터 2005년에 걸친 대규모 개장공사를 끝냈다. 색색의 페인팅이 눈길을 끄는 숭하우스 형태의 건물이 이어져 강쪽으로 튀어나온 테라스석이 수면을 물들인다. 각국의 요리를 선보이는 다이닝과 바, 라이브와 쇼를 볼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스폿 등 최첨단 스폿이 30여개 모여 있어 싱가포르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이다. 저녁 이후에는 사테(Satay)나 로컬 푸드 포장마차도 선다. 일루미네이션(Illumination, 전식광고)이 빛나는 저녁은 낮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활기를 띈다.



[클러크 키의 거리]



[클러크 키의 쉼터]



[클러크 키의 에어컨]



[클러크 키의 가로수]

3. 방문시 전문사항

□ 싱가포르 도시 전경

- 싱가포르 중심지는 대부분 비즈니스 빌딩들로 가득차 있다. 바다로 뻗어 나가는 싱가포르 강변을 중심으로 시청과 법원·의회 등 각종 공공건물과 대형 호텔·비즈니스 빌딩이 줄지어 서있다. 도시의 길들은 차량과 사람이 질서있게 지나다닐 수 있으며, 무엇보다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로 움직이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보행을 보장하고 있다.
- 싱가포르의 도시는 강변로와 중심상업지구를 가운데 두고, 차이나타운, 리틀인디아, 캄퐁 글램 등 민족별 주거밀집지, 습지와 근대적 요새 유적이 남아있는 라브라도 지역, 싱가포르 자연유산이 밀집된 서부의 캔트리지 지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도시생활의 대부분은 중심상업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주거는 각 민족별 밀집지대에서 이루어진다.
- 시청 광장에서부터 아트하우스-문명박물관을 지나 싱가포르 초기 근대 문화가 시작된 보트키(강변지구)-최초의 근대식 호텔인 플러튼 호텔-머라이온 파크-에스플라네이드까지 이어지는 길은 산책하기에도 적당하고 볼거리도 풍성하다. 플러튼 호텔 주변에는 고층의 세계적 은행빌딩들이 밀집돼 있어 설명을 듣지 않아도 이곳이 금융가임을 알 수 있게 한다.

- 싱가포르의 특징은 도심의 가까운 곳에서 조금만 걸어도 문화시설과 위락시설을 만날 수 있다. 싱가포르의 전설 속 동물인 머라이온 동상이 우뚝 서 있는 머라이온파크는 싱가포르 강변가운데 가장 넓은 마리나베이에 위치해 있다. 이 곳을 중심으로 싱가포르 최대의 문화시설인 에스플라네이드가 세워져 있고, 그 반대편에 카지노지구가 이어지고 있다.
- 빌딩 숲에 둘러싸여도 삭막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이처럼 도심과 공원, 문화시설과 위락시설이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의존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조화를 이룬 도시전경]



[조화를 이룬 빌딩들]

□ 싱가포르 주택정책

- 싱가포르는 인구 약 430만명이 서울시와 부천시를 합한 크기의 국토에 모여 사는 고밀도의 도시국가이다. 말라카해협에 위치해 일찍부터 무역이 발달한 교통요지인 싱가포르는 도시에 국제적 규모의 항만, 공항, 저수지, 군시설, 도시기반시설 등을 지녀야 하는 하나의 국가이기도 하다. 주거와 업무용시설로 쓸 수 있는 국토는 더 좁아질 수 밖에 없다.
- 어떻게 하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많은 인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싱가포르란 국가의 최대과제였다. 한국과 비교하면 외형적으로 훨씬 열악한게 싱가포르의 주거 현실인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문제는 한국과 너무나 달랐다. 국민 대부분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 가장 좁은 땅을 소유한 국가의 국민들이지만, 어느 나라의 국민보다 내집 마련의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있었을가의 의문점은 싱가포르에서 공공주택을 관장하는 주택개발청(HDB)와 도시계획을 다루는 도시재개발청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 싱가포르의 효율적인 주택정책은 국민 주거 욕구의 절실함을 인식한 정부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면서도 강력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통해 이루어졌다.
- 싱가포르의 주택보급율은 110%가 넘고 국민의 약 85%는 정부가 공급한 HDB 아파트에 거주한다. 20% 미만의 부유층만이 민간주택을 소유하고 사는 것이다. 한마디로 내집마련 걱정이 없는 나라다.
- HDB 아파트는 평생 두 번까지 공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집값의 대부분(80%)을 장기저리(2%) 용자로 입주자에게 빌려준다. 대신 입주자는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건물만을 소유하다가 집값 상승분 등을 반영해 주택을 되팔 때 반드시 공급한 정부에 팔아야 하는 환매조건부의 주택이다. HDB 주택분양을 통해 물가상승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두기 힘든 구조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싱가포르 정부가 1965년 독립하면서 국토의 40%였던 국유지는 1966년 도입한 강력한 토지취득법 덕택에 현재 90% 수준이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의 힘은 바로 국가의 토지 소유와 다량의 공공주택 공급, 적극적인 대출 지원 등에서 비롯한다.
- 싱가포르 국민 모두가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의 집을 제공한다(Affordable homes)는 것이 HDB의 최우선 목표다. 신생국가가 각기 다른 민족 출신 국민들에게 집을 공급함으로써 국가의식을 심어주고자 한 것이 싱가포르 공공주택의 배경이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도 과감하다. 싱가포르 전체예산의 3.8%(한국 약 0.5%)를 투입한다.
- 싱가포르에서도 공공주택이 주택수요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보안이 확실하고 수영장이 있고 편의시설이 더 나은 민간아파트를 선호한다. 싱가포르에서는 HDB 아파트를 “플랫” 민간아파트를 “콘도”라고 부른다.

- HDB의 최근 주력 정책은 기존 HDB 주택의 고품질화이다. 지어진지 30년이 넘은 저층 주택들을 헐고 새로이 40~50층 대의 고밀도로 재개발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정부부문이 최소규모의 공공주택을 다량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품질 주택을 요구하는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인 것이다.

□ 싱가포르 도심재개발의 민간과 정부의 역할

- 싱가포르는 지난 40년간 도심재개발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 하였다. 이러한 혁신적인 도시 재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및 절차에 있어서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한다. 개별법령을 거쳐 종합계획이 설립되었고 이에 따라서 토지사용과 도심교통을 위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었다.
- 싱가포르는 국가가 토지의 90%를 소유하고 있다. 1996년도에는 정부가 “토지취득강령”을 법으로 제정하여 정부와 관련기관들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땅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법을 만들었다, 정부는 토지의 소유자, 토지사용 기획자, 입법자 및 규제자의 역할로서 민간부분의 도시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선택적 집세통제 해제를 추진하여 민간부분의 수요변화에 대응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 1969년도에는 선택적 지역통제 해제 법안을 내놓았으며 2001년도에는 집세통제가 완전히 없어졌다. 상업적 중심가인 Golgen Shoe블럭을 통제해제구역으로 지정하여 60개 이상의 민간 재개발사업을 완성시키는데 정부가 큰 역할을 하였다. 이것뿐 아니라, 정부는 토지매매 및 종합계획 변화를 시도하는 등 민간부분이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거의 모든 싱가포르의 도시재개발은 정부 토지매매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정부는 민간(외국인 포함)에게 99년의 토지 임차를 내세워 토지를 판매하였다. 초창기에는 호텔, 쇼핑센터 및 오

락시설 위주로 판매되어 관광산업에 크게 기여를 하였고 1990년부터는 주거용으로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정부 토지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1967년과 2002년 사이에 820ha의 용지가 민간업자들에게 판매되었다.

- 싱가포르 정부는 경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 및 국가차원에서 도시재개발을 위한 정책마련에 고심하여 왔으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 도시재개발 전시관

- URA에서는 입주건물내에 1999년 1월 27일 문을 연 싱가포르 시티갤러리는 전세계로부터 도시계획을 연구하는 많은 공무원과 방문객이 찾는 곳이며, 40여년의 짧은 기간에 싱가포르라는 작은 도시국가가 어떻게 오늘의 번영을 이루게 되었는지를, 토지의 계획적 활용에 대해 어떤 접근을 해왔는지를 설명한다.

비단 도시의 역사와 현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좁은 국토라는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고 번영을 이루기 위해 범국가적 자원에서 집단적 지혜를 모으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 주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도시개발청의 임무는 “싱가포르를 살고, 일하고, 즐길 수 있는 위대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고, 시티갤러리는 다양한 전시물과 쌍방향적인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홍보하는 장소로서 싱가포르라는 작은 도시국가가 이렇게 짧은 시간안에 번영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미래 또한 밝아보이는 이유는 이 갤러리에서 확인되었다. 좁은 국토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범국가적 지혜를 모으고 “공공적 이익”을 맨 윗자리에 놓은 모습이 그 번영의 이유였기 때문이다.

□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공존발전을 추구하는 싱가포르

- 싱가포르가 현재 힘을 싣고 있는 양대 중점 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다.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공존하는 발전을 추구하고 있

다. 싱가포르의 동남아 서남아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위치를 십분 활용, 아시아의 물류 중심지로도 유명하다. 싱가포르 국내총생산(GDP)의 8.6%를 물류가 차지하고, 물류분야에서 11만명이 일할 정도다. 도심의 고층빌딩에서 내려다보면 컨테이너가 가득 찬 항만이 바로 보인다. 싱가포르는 세계 제1의 컨테이너 항만을 보유한 나라이다. 아시아 1위의 자동차 선적항구, 항공 화물 기준 아시아 4위가 바로 싱가포르이다.

- 금융산업도 싱가포르 GDP의 12%를 차지한다. 한국이 아시아의 금융허브를 외치고 있지만 싱가포르는 한발 앞서 있다. 특히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뒤 홍콩이 차지했던 자리에 싱가포르가 올라탔다. 1,7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제4위의 외환거래 시장이 형성돼 있고 500여개의 금융사가 싱가포르에서 비즈니스를 한다. 금융분야 모두를 공략하기보다는 몇 개 분야를 정해 놓고 특화하고 있다. 주력하는 분야는 자산관리와 프라이빗뱅킹(PB)이다. 싱가포르 통화청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는 연 6,980억 달러 규모의 자산관리 시장이 형성돼 있다. 이중 80%의 자금이 아시아 다른국가,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다.
- 홍콩을 능가하게 된 대표적인 분야는 바로 PB이다. 거부들은 최근 비밀 보장,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중국이 된 홍콩보다 싱가포르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PB의 대표국인 스위스의 시장이 연 3조 7,000억 달러라면 싱가포르에는 연 2,000억 달러 규모의 PB시장이 형성돼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연 8%씩 성장해온 결과이다. 이러다 보니 주로 홍콩에 있던 글로벌 금융사의 아시아태평양 본부가 싱가포르로 대거 옮겨 왔다. 물류중심지인 동시에 금융 허브로 도약한 싱가포르의 역량을 높이 사서이다.
- 싱가포르는 이처럼 적지 않은 분야에서 빛을 발한다. 하지만 안주하지 않고 앞을 보며 달려 나간다는게 이 나라의 특징이다. 싱가포르 사람들에게 있어 최근의 이슈는 바로 카지노와 표플러원(F1) 레이싱 대회이다.

- 마리나베이에 짓고 있는 카지노는 2009년 완공을, 센토사섬에 공사중인 카지노는 2010년 완공이 목표이다. 길거리에 침만 뱉어도 벌금을 물리는 바른생활 국가 인식되는 싱가포르로서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다. 카지노 추진 전에는 찬반양론으로 온 나라가 득씩거렸다.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바란생활을 뛰어넘어섰다. 1965년 국가 설립 후 40년간 금지하던 카지노를 허가한 것이다. 미국 라스베가스의 샌즈(Sands)사와 손잡고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를 개발하기로 했다. 카지노와 함께 컨벤션 센터 등도 유치한다. 센토사섬에는 카지노외에도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들어온다. 비즈니스맨이 찾아와도, 가족 단위 여행을 와도 즐겁도록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 세계 자동차 경주대회인 F1을 유치한 것도 싱가포르의 자랑이다. 관광객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모두 유치하고야 만다는 전략의 결과물이다. 2009년부터 열리는 F1대회의 특징이 두가지가 있다. 전용경기장이 아닌 싱가포르 도심의 빌딩사이를 달리게 된다는 것과 밤에 열리는 것으로 다른 국가에에서 개최한 대회와는 확연한 차이점이 있다. 도심 곳곳을 가까이 볼 수 있는 호텔방들은 이미 다 예약이 다 찼을 정도이다.
- 황금알을 캐내는 데 전력투구하는 싱가포르 정부의 강력한 국가 통치력은 익히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 국민들, 기업가는 불만을 제기하기는커녕 정부를 싱가포르 파워의 원천으로 본다. 싱가포르투자청은 테마섹(Temasek)과 함께 국부 펀드를 운용하는 기관이다. 치밀한 계획아래 높은 수익률을 내는 정부기관으로 손꼽힌다. 싱가포르 정부의 성향을 그대로 반영한 기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싱가포르의 힘 가운데 첫 번째를 꼽으라면 정부의 투명하면서 효율적인 통치력을 말할 수 있다. 기업인들이 평가처럼 초대 리완유 총리부터 그의 아들인 리셴룽 총리까지 한결 같이유능한 국가 최고경영자(CEO)로 통한다.

- 이들이 이끈 싱가포르의 국가 마케팅, 국가 브랜딩에도 강하다. 외국인이 투자하기도 좋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가든 시티(Garden City)”, “워터시티(Water City)” 등의 국가 브랜드를 만들었다. 싱가포르의 녹지정책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미국 대륙의 0.008%에 불과한 땅덩어리지만 싱가포르의 녹지밀도가 미국보다 높다. 수자원 또한 가장 잘 관리하는 국가로도 평가 받는다. “워터시티”라는 수식어를 괜히 붙인 것이 아니다.
- 이제는 “월드시티(World City)”라는 브랜드를 정부차원에서 알리고 있다. 예전의 싱가포르는 “동양이 서양을 만나는 곳(East Meet West)”이라는 문구를 앞세웠다.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메트로폴리탄, 코스모폴리탄 콘셉트를 입혀 “월드시티”를 표방하고 있다. 다민족 다인종 국가라는 부분을 십분 활용한 것이다.
- 중국계와 말레이계, 인도계에서 세계 각지에서 온 외국인이 섞여 사는 싱가포르에는 인종 갈등이 거의 없다. 여러 인종과 섞여서 살다 보니 모국어를 아예 영어로 정했다. 이러다 보니 홍콩이나 상하이 사람들이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싱가포르만큼은 아니다. 외국계 기업을 유치할 때도, 타국의 유학생을 영입할 때도 영어가 모국어라는 점은 단연 유리하다. 이렇게 북미와 영국을 제외하고 싱가포르처럼 전체 인구의 80%이상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국가는 흔치 않으며, 이 나라의 강력한 경쟁력중 하나는 영어라는 생각이 든다.

□ 싱가포르의 바이오산업

- 21세기의 선도 유망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산업(Biotechnology Industry)을 싱가포르에서도 집중 육성하고 있다. 2006년 10월에 완공한 바이오폴리스(Biopolis)는 총 22만 2000 m² 부지에 8~12층 짜리 건물 7개 동이 들어서 있다. 건물 공사비만 3,000억원이 투입된 명실상부한 싱가포르 바이오 연구·개발의 총본산지이다.

- 싱가포르과학기술청과 바이오연구위원회, 생물정보연구소, 게놈연구소, 세포분자생물학연구소 같은 정부기관은 물론 세계적인 다국적 회사인 세계 제2위 제약업체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퇴행성 신경질환 연구센터를 비롯해 노바티스(열대병연구소), 일본의 세이코 등이 입주해 있다. 여기서 남쪽을 향해 5분 정도 내려오면 사이언스파크 단지와 바이오 메디컬 파크가 나온다. 바이오폴리스가 R&D에 집중하는 반면, 메디컬 파크는 직접 생산하는 곳이다. 글로벌 바이오 허브를 겨냥한 싱가포르의 “3각 편대”가 반경 2m² 안에 집결해 있으며, 이와 같이 싱가포르가 바이오산업에 주력하는 것은 전통 산업만으로는 더 이상 번영을 구가하기 힘들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쇠고기, 닭고기 등 육류는 물론 먹는 물까지 인근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처지이다.
- 국가비전은 이미 꿈의 단계를 넘어 현실화될 조짐이다. 2006년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생산량은 S\$180억(약 10조 8,000억원)으로 2000년(S\$64억)보다 3배로 성장했다. 싱가포르는 2015년까지 바이오메디컬 부문 생산량을 S\$250억으로 늘리고 15,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연구개발은 물론 완제품 생산까지 모두 싱가포르에서 이를 계획이며, 단순 생산기지를 넘어 바이오산업 마케팅과 의료서비스까지 연결해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10년까지 S\$120억을 바이오 메디컬 분야 R&D에 집중 투자한다. 이는 1991년부터 2001년까지 투자한 총금액과 맞먹는 액수이다.

□ 관광대국으로 부상하는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60여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섬 국가이다. 본섬의 총면적은 약 699km²로 우리나라의 서울과 부천시를 합한 면적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 도시의 면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가늠해서는 안된다. 단 150년만에 세계 중계 무역항의 중심지로 부각되면서, 싱가포르항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구가 되었다.

또한 아시아의 주요 금융 중심지 중 한 곳인 싱가포르는 130여 개의 은행, 24시간 전산 및 전화 시스템, 그리고 최신 시설의 위성망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세계 모든 국가들을 연결하는 첨단 통신네트워크는 편리한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하였다.

- 이렇게 뛰어난 시설과 지리적 위치, 신구문화의 대조적인 매력, 아름다운 관광명소들로 인해 싱가포르를 찾는 관광객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깨끗한 도시풍경, 꽃과 열대수들, 넓고 쾌적한 도로, 말레이시아로부터 들여온 깨끗한 상수도, 도시 외곽의 열대우림 등 싱가포르의 자랑거리는 풍성하다.
- 이것은 싱가포르 정부의 어찌보면 가혹한 환경보호 정책때문인데, 어쨌든 이에 따른 싱가포르의 도시환경은 세계 최고수준이라 할 수 있다. 싱가포르 국민보다 많은 수의 관광객들이 찾는 이유 또한 바로 그 점에서 비롯된다. 깨끗한 거리와 맑은 공기, 편리한 교통과 선진화된 제반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싱가포르는 외국인 관광객들로부터 다시 찾고 싶은 나라 1순위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깨끗한 싱가포르의 거리 1]



[깨끗한 싱가포르의 거리 2]

【 말레이시아 (Malaysia) 】

1. 개 요

- 수 도 : 쿠알라 룸푸르(Kuala Lumpur)
- 인 구 : 약 2,500만명
- 면 적 : 약 329,733km²
- 언 어 : 말레이어가 공용어이나, 영어가 널리 사용
- 기 후 : 고온다습의 열대성 기후(21℃ ~ 34℃)
- 주요민족 : 부미푸트라(58%),중국인(25%),인도인(7%),기타 (10%)
- 종 교 : 말레이인은 이슬람교가 국교(종교의 자유 헌법으로 보장)
- 시 차 : 우리나라보다 1시간 늦다.
- 통 화 : Ringgit Malaysia(RM)

2. 주요 방문 지역

□ 조호바루(Johor Bahru)

- 싱가포르의 중심부에서 북쪽으로 약 26km, 말레이시아반도의 최 남단에 있는 말레이시아의 도시로 조호르 주의 주도이다. 조호를 수로를 사이에 두고 싱가포르와 상대하고 있는 국경도시로서 말레이 특급열차가 달리는 철도와 도로가 통하는 전장 약 1,040m의 철교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1855년 술탄, 아부 바카루에 의해 건설이 시작된 도시로서 시내에는 왕궁과 회교사원, 아름다운 정원, 키가 큰 열대수가 줄지어 선 도로 등이 있으며 고도의 분위기가 넘쳐난다. 옛탑에 오르면 말라카 해협에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의 섬들의 원경, 남지나해의 대파노라마가 전개된다. 교외에는 고무와 야자유의 광대한 농장이 있으며 파라 고무와 코프라야자의 숲에 말레이시아의 바다바람이 스치고 남국적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 ① 캄퐁 모하마드 아민 말레이 문화촌(Kampung Mohd Amin Malay Cultural Village)
 - 시내 중심부에서 서쪽, 자동차로 15분 정도 가면 말레이시아 전통문화와 생활을 소개하는 캄퐁마을이 있다. 대나무로 만든 민속악기 “앙클롱”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민속무용 공연을 볼 수 있다. 이곳은 경영자의 자택과 농원을 개장한 것이며, 정원도 잘 조성돼 있다. 망고스틴·두리안·파파야시나먼 등의 열대식물도 볼 수 있다.
- ② 아부 바카르 모스크(Abu Bakar Mosque)
 - 술탄 왕궁 뒤편, 나지막한 언덕 위에 서 있는 아부 바카르 모스크는 유백색 벽이 주변의 녹음, 푸른 하늘과 절묘하게 어우러져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다. 모스크의 건축양식도 아주 섬세해 여성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조호르 사람들은 이 모스크를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스크”라고 칭송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절로 동감하게 된다. 이 모스크는 1892년에 아부 바카르가 세운 것으로 2,00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예배당에는 신자가 끊이지 않는다. 저녁이 되면 조호르 주도에 비치는 석양과 예배당에서 들려오는 『코란』을 외는 소리가 이슬람 사회 특유의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3. 방문시 견문사항

□ 캄퐁 원주민마을

- 이곳 캄퐁마을 원주민들의 공연을 관람한 후 주위시설을 둘러보는데 매점입구의 유리문에 붙여진 한국어로 된 반가운 행사포스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우리나라 함평군의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홍보하는 포스터였다. 시기적으로 우리 내국인들이 자녀들의 겨울방학을 이용해 많이 찾는 동남아시아 특히 싱가포르와 인접한 말레이시아의 이 작은 원주민 마을에 행사를 홍보함으로써 내국인들로 하여금 감동을 이끌어 내며 홍보효과를 배가 시키는 함평군의 적극적인 노력에 감탄하였다.



[함평군 행사홍포 포스터 1]

[함평군 행사홍포 포스터 2]

- 우리 안성시에서도 2008년 바우덕이 축제, 2012년 세계민속축전을 해외에서 외국인들 대상뿐만 아니라 국내관광객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인도네시아(Republic of Indonesia) 】

1. 개 요

- 수 도 : 자카르카(Jakarta)
- 인 구 : 약 2억 800만명(세계 4위)
- 면 적 : 약 1,900,000km²(한반도의 9배)
- 언 어 : 인도네시아어
- 기 후 : 고온다습의 열대성 기후(25℃ ~ 34℃)
- 주요민족 : 자바족(45%), 순다족(13.6%), 아체족, 바딕족, 발리족 등 300여 종족 분포
- 종 교 : 회교(87%),기독교(6%),카톨릭(3%),힌두교(2%), 불교(1%),기타(1%)
- 시 차
 - 동부, 중부, 서부의 3지역으로 구분되어 동부의 이리안자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고, 발리와 칼리만탄, 슬라웨시 등은 1시간 늦으며, 수도 자카르타를 포함한 자바와 수마트라는 2시간이 느리다.
- 통 화 : 루피아(Rupiah)

2. 주요 방문 지역

□ 바탐섬(Pulau Batam)

- 바탐은 서울의 2/3면적인 415km²로 수마트라 동부 빈탄섬이 있는 리아우 주에서 비교적 큰 섬에 속하며 주로 주위의 섬들에서 이주해온 인도네시아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산업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현재는 인도네시아의 각 지역에서 돈을 벌기 위해 또는 투자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으며, 소수의 오랑라우트(Orang Laut)토착 부족민이 아직도 이 섬에 살고 있기도 한 곳이다.

- 싱가포르의 무역, 금융, 교통 비즈니스 서비스 시설과의 연관이 많은 전략적인 위치에도 불구하고 바탐섬은 1971년까지 개발되지 않았다. 이후에 인도네시아가 원유를 찾아 기지를 세움으로써 발전이 시작되었다. 오늘날에는 산업, 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관광 산업도 함께 육성하고 있다, 몇십년전만해도 고기마을에 불과했던 이곳은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 바탐은 이제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외국의 자본들이 이곳에 새로운 공장들과 주택, 레저시설, 그리고 골프 코스와 호화로운 호텔들을 짓기 위해 몰려들고 있어. 바탐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중요한 산업중심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3. 방문시 견문사항

□ 바탐섬(Pulau Batam)

- 바탐 원주민마을
 - 한 가족들로 구성된 원주민들의 공연을 관람한 후 마을을 둘러보았을 때 곳곳의 분위기는 우리나라 1970년대의 어느 시골 마을을 연상케 했다. 비록 가난한 모습이였지만 어른들과 아이들이 해맑은 미소와 웃음은 마음을 한결 푸근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곳에서 자연에서의 아름다움을 가슴으로 느끼기 보다는 관광객들과 더불어 어렵게 살고 있지만 그저 행복해 보이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느낄 수 있었음.

Ⅲ. 해외 연수를 마치며 시사하는 점

- 창이공항에 도착하기 전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는 싱가포르의 가로등과 불빛으로 찬란한 전경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공항에서 입국수속을 마친 후 셔틀버스안에서 보는 싱가포르의 거리도 잘 정돈된 공원처럼 계획적이고 깨끗하였으며, 코즈웨이를 지나기전까지 신호등 하나 걸리지 않을 정도로 편리한 교통체계는 감탄을 자아낸다.

- 싱가포르는 1980년대 한국·대만·홍콩과 더불어 아시아의 용으로 불리었다. 지금 싱가포르의 위상은 4마리 용가운데 가장 으뜸이다. 2005년 1인당 국민소득이 26,0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3만달러를 돌파함으로써 자국을 점령하였던 영국이나 일본의 국민소득을 넘어서고 있는 선진국이다.
- 싱가포르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자랑한다. 무엇보다도 부러웠던 정부의 주택정책이었다. 가장 좁은 땅을 가진 나라중에 하나지만, 어느나라 국민보다 내집마련의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이 싱가포르이다. 싱가포르의 주택보급률은 110%가 넘고 국민의 약 85%는 정부가 공급한 HDB(주택개발청)아파트에 거주한다. 20% 미만의 부유층만이 민간주택을 소유하고 산다. 정부는 집값의 대부분(80%)을 장기저리(2%) 용자로 입주자에게 빌려준다 하니 한마디로 내집마련 걱정이 없는 나라인 것이다.
-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은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많은 나라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연구되고 있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싱가포르의 주택정책도 그 나라의 역사와 환경에 뿌리를 둔 특수성을 지닌 것이어서 비록 많은 면에서 우리와 다르지만 적어도 토지와 주택은 일반적 재화와는 다른 특수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무조건 시장에 맡기기보다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때로는 훨씬 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여진다.
- 싱가포르는 지난 40년간 도심재개발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 하였다. 이러한 혁신적인 도시 재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및 절차에 있어서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한다. 개별법령을 거쳐 종합계획이 설립되었고 이에 따라서 토지사용과 도심교통을 위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었다.
- 40여년의 짧은 기간에 싱가포르라는 작은 도시국가 어떻게 오늘의 번영을 이루게 되었는지와 토지의 계획적 활용에 대해 어떤 접근을 해왔는지는 URA(도시재개발청)내에 있는 싱가포르 시티

갤러리에서 엿볼수 있었다. 좁은 국토라는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고 번영을 이루기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집단적 지혜를 모으는 과정을 보고 앞으로의 미래 또한 밝아 보였다.

- 도시개발청의 임무는 “싱가포르를 살고, 일하고, 즐길 수 있는 위대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라 한다. 이렇게 좁은 국토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공공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싱가포르의 모습이 그 번영의 이유였음을 알게 되었다.
- 싱가포르는 현재 주력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2003년 1차와 2007년 2차적으로 최첨단 창업보육 시설인 “바이오폴리스” 생명학의 복합지를 건설하였다. 바이오폴리스에는 게놈연구소, 바이오 엔지니어링 연구소, 바이오 인토매텍스 연구소 등 공공 연구기관 외에 민간의 연구기관이 집적하고 있고, 그 주변에는 기존의 국립대학 등 연구기간이 집적되어 있었다.
3,000억원이 투입된 바이오폴리스외에도 향후 새로 짓고 있는 퓨전폴리스에 10년간 총 2조원을 투입한다 하니, 글로벌 바이오 복합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싱가포르의 노력은 정말 대단했다.
- 이렇듯 싱가포르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세계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이 넘쳐 흐르는 국가임을 다시한번 실감하게 되었다.
- 3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선진국가의 여러 분야를 배우려니 좀더 깊고 자세한 견문을 익히지 못한 것 같아 사뭇 아쉬움이 많이 남는 연수였다.
-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와 우리 안성시와는 모든 면에서 비교가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보고 느끼고 배웠던 싱가포르에 대한 견문을 토대로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는 안성시의 시정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